



한암(漢岩) 선사의 편지 <18>

제대로 깨닫고자 한다면...



경봉스님에게 답하는 편지

만약 일생(一生)의 일(깨닫는) 일을 원만, 구축하게 하고자 한다면, 옛 조사 선지식들이 말씀하신 방편적인 어구(語句)로써 스승과 벗을 삼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보조국사께서는 일생토록 <육조단경(六祖壇經)>으로 스승을 삼고, <대혜서장>으로 벗을 삼았습니다.

조사의 연구 가운데서도 제일 중요한 책은 대혜선사의 <서장(書狀)>과 보조국사의 <절요(節要)>와 <간화결의론(看話決疑論)>입니다. 이 어록들은 모두 다 활구법문이니, 항상 책상 위에 놓아두고 수시로 점검해서 자기에게 돌리면 일생의 일은 거의 어긋남이 없을 것입니다. 나 또한 여기서 힘을 얻은 것이 있습니다.

또한 <서장>과 <간화결의론>과 <절요>의 끝 부분을 의지하여 활구(活句)를 참구(參究)하는 것이 매우 좋고 매우 좋습니다. 나의 이 말이 비록 번다한 것 같지만, 그러나 나 역시 일찍이 해메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나그네(수행자, 납자)의 심정을 잘 아는 것이니, 부디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일시적인 깨달음에 만족하여 깨달음 뒤에 더 다투는 지속하지 않는다면, 영가(永駕)스님이 말한 "모두 공(空)이라고 여기면서 인과(因果)를 무시하고 어저러이 방탕한 행동을 한 결과 재앙을 초래한다."는 것이니, 절대로 식견이 얇은 자들이 잘못 알고서 떠드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편견에 사로잡혀서 인과와 죄복(罪福)을 무시하는 것을 배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일 활구(活句)를 깨닫지 못하고 다만 문자(文字)만 본다면 그 또한 의리(義理)에 걸려서 도무지 힘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또 말과 행동이 서로 어긋나서 증상만인(增上慢人)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니 간절히 모릅지기를 두소서.

무건(戊辰, 1928)년 3월 7일

이 편지는 1928년 3월 7일, 경봉스님에게 답한 편지이다.

내용은 만약 일생사(一生事, 깨닫는) 일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대혜선사의 <서장>

(書狀)과 보조국사의 <절요(節要)>와 <간화결의론>이 활구법문이니, 수시로 이 3-4가지의 어록을 참고한다면 일생의 일, 즉 깨달음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한암선사 자신도 이 어록들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만약 일시적인 깨달음에 만족한 나머지 오후(悟後)의 수행(修行) 즉 깨달은 뒤에 보임을 하지 않고, 또 모두 다 공(空)한 것이라고 하면서 인과를 무시하고 방탕하게 행동한다면 깨달은 것도 허위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일체개공이요, 죄의 본성이 공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여색(女色) 등 마택막을 하고 음주식육을 한다면 재앙을 초래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여기서 재앙을 초래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수행자로서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뜻이다. 즉 공(空)에 빠져서 파계를 일삼는 등 함부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불제자가 아니다. 부처님은 계율을 지키라고 했는데, 주색을 일삼는다면 그는 '마구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진공묘유(真空妙有)의 이치도 모르고 공에 빠져서 주색잡기 등으로 불법(佛法)을 망친 선승이 한 둘이 아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또 활구를 참구하지 않고 문자(文字)만 본다면 의리(義理, 알음알이)에 걸려서 도무지 힘을 얻지 못하게 되며, 말과 행동이 서로 어긋나서 증상만인(增上慢人, 이만. 즉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므로 간절히 모릅지기를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조사들의 활구 스승 · 벗 삼아야"
<서장><간화결의론><절요> 추천
"문자 보다 '활구' 깨달아야"

이 편지는 1928년 3월 7일, 경봉스님에게 답한 편지이다.

내용은 만약 일생사(一生事, 깨닫는) 일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대혜선사의 <서장>



윤창화(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어려운 이주민 齒痛 치료하며 세상의 벽 허물고 하나 되죠”

(치통)

화계사 무료치과 진료 '다인치과 봉사회'

매주 토요일 오후 5시가 되면 화계사 무료치과진료소에 다인치과(대표원장 양현봉) 직원들로 구성된 10여명의 봉사자들이 도착한다. 이들은 토요일 병원 근무를 마치고 치자마자 매주 어김없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다. 이주민 노동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다. 일주일의 마지막 출근인 토요일 저녁, 휴식을 취하고 싶은 법도 한데 봉사자들은 한결 같은 모습으로 이곳에서 환자들을 맞는다. 무료치과진료소를 찾는 이주민 환자는 매주 15명 내외. 다인치과 봉사회는 치과 진료가 절실한 이주민들에게 지난 5년간 자비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

치과진료가 시작되었다. 양현봉 대표원장은 매주 진료를 오고, 50여 명의 직원들은 순번을 정해 이곳을 찾는다. 양원장은 오고 싶은 날도 오기 싫은 날도 두루두루 그 마음 잘 살피며 오다보니 5년이 지났다고 말한다.

“토요일 진료를 마치고 매주 이곳에 오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물론 오기 싫었던 날도 있었죠. 봉사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왜 이런 마음이 들까 깊게 생각도 해보았

양현봉 대표원장 발원으로

2010년 무료진료소 개원

매주 토요일 이주민 15명씩

보철·틀니 등 치과 치료 봉사

“오직 모를 뿐 수행하라”는

승산 스님 가르침 새기며

형식적 봉사 경계하고

세상에 잘 쓰이는 일 고민

메어는 순간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마음은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 기꺼이 오고 싶은 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을 뿐이라는 걸 알았죠. 다만 일주일에 한번씩 이곳에 오는 걸 원칙으로 삼으니 그 원칙만 지키면 되겠다 마음 먹었어요. 이제는 좋고 싫은 마음을 떠나 토요일 오후엔 자연스럽게 이곳으로 향하게 돼요. 어쩌다 개인적인 일로 제가 빠지고 직원들만

오게 될 때에는 오히려 제 마음이 불편해요. 이러니 이제 무료진료는 제 삶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된 셈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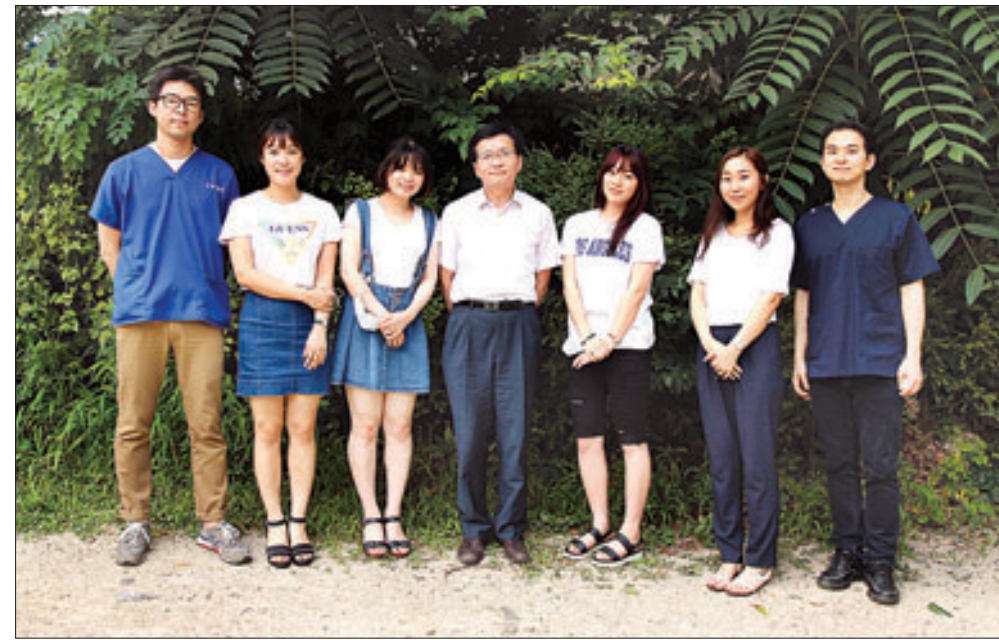
직원들 역시 양 원장과 함께 무료진료에서 보람을 찾는다. 2011년부터 봉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사 김홍식(38)씨는 좋은 취지로 하는 봉사인 만큼 뿌듯함을 느낀다.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치료해준다는 데서 보람을 느낍니다. 물론 피곤한 날도 있지만 여기서 진료를 하고 나면 뿌듯함을 느끼기 때문에 또 오게 되죠. 물론 장비의 제약 등으로 치료의 한계가 있어 안타까운 면이 있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완 되어 조금 더 다양한 진료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화계사 무료진료소는 미용을 위한 치료는 하지 않는다. 치료가 절실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가 없거나 빠진 이들을 위한 보철 치료가 주를 이룬다. 그러다 보니 욕심을 부리며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는 환자들은 설득을 시켜 치료가 완료되니 대부분의 환자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양원장은 전한다.

“처음에는 간단한 치료가 목적이었는데 진료를 하면서 이가 없는 이주민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관련 업체들의 지원을 받아 지금은 보철 위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보철 같은 경우는 최소한 3~4회 정도를 방문해야 치료가 완료되니 대부분의 환자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죠. 그러니 저희들도 진료를 한 주도 거를 수가 없어요. 명절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료 진료소는 매주 문을 열고 있습니다.” 진료소 문을 연지 5년이 지나다보니 이런 저런 사연도 많다. “몇 번의 치료를 마치고 보철만 하면 되는 단계에서 환자가 증병이 걸려 진료소를 찾지 못하고 연락이 끊긴 경우도 있었어요. 또 어떤 환자는 이를 후 귀국을 앞두고 있는데 보철이 안 맞아 난감했던 일도 있었죠. 결국 다시 보철을 제작해 소포로 부쳤던 일이 기억에 남네요.”

불교 안에서 세상을 만나

양 원장이 이처럼 적극적인 회향을 결심하게 된 것은



다인치과 봉사회는 매주 토요일 저녁 화계사 무료치과진료소에서 5년째 무료 치과진료를 진행하고 있다.



다인치과 직원들의 무료 진료 모습.

이 책을 읽으면 다시는 헤매지 않고 이 법을 실행하면 가볍게 생사를 벗어난다!

해탈의 돈법(頓法)이 설파된 보배로운 책

염불처럼 강한 해탈(三界超脱)문이 없고 선정같이 빠른 증득(證得)문이 없다.

염불은 정토왕생에 제일 확실한 방법이다. 님은 이마다 하나같이 죽음도 능히 정복할 만큼 편안히 미소 지으며 정토왕생을 쉽게 성취한다. 선정은 심통(근 깨달음)을 얻는 제일 독특한 수행법이고 님이면 번뇌가 상거를 만큼 전심(全心)이 성취되는 부사의(不思議)한 큰 도리를 얻는다.

염불을 정진하고 누가 극락왕생을 못하며 선정이 숙달되고 누가 개오(開悟)를 못 이루는가? 염불에 득력하면 생사를 가지고 놀고 선정에 득력하면 마음을 가지고 논다. - 본문 중에서

본서는 중국의 고승 당해(1875~1963)대사의 명저인 『염불론』을 무심 송상섭 선정수원원 지도원장이 번역하고 해설한 책이다. 내용이 간략하고 더없이 명확하다. 해탈 필요가 없는 가장 중요한 해탈법의 핵심을 염불 수행을 중심으로 말해주고 있다. 옛 중원(中國) 오종(五宗: 선종, 교종, 말종, 율종, 정토종)의 진역을 하나로 모아 읽으면 누구나 낙오 없이 해탈하게 되어있다. 이 책은 또한 염불을 통해 일년, 무념에 들 수 있는 방법으로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를 동시에 두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설명하면서, 선정(禪定)의 힘을 얻는 방법도 체험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완벽한 해탈문, 정토왕생법
가장 빠른 해탈법(神通乘)
제일 확실한 해탈법(金剛乘)
너무도 놀라운 해탈법(不思議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해탈법(最上乘)

담허대사의 염불론과 정혜쌍수(定慧雙修)

삼계를 벗어나는 최상의 해탈법

담허대사 | 송상섭 번역 | 신국판 | 무선 | 부분컬러 | 232쪽 | 12,000원